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따른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the Study of Children's Aggression

안 지 영

Ahn, Jee Young

박 성 연**

Park, Seong Ye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boys with the use of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he subjects were 80 3rd & 6th grade boys selected from a public elementary school in Seoul. The subjects were interviewed individually. Following the presentation of each story, five questions were asked. A 2 x 2 Analysis of Variance was performed for each of the 5 dependent measures. Results showed (1) Aggressive boys were more likely to attribute a hostile intention to the behavior of peer. (2) Aggressive boys predicted their own response as more hostile and aggressive. (3) The 6th graders generated more alternative solutions than the 3rd graders. (4) Non significant results are not reported in the abstract. (5) Aggressive boys were likely to choose an ineffective solution.

I. 서 론

공격성에 관한 이론과 연구들은 개인적인 측면이나 유전학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의 다양한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공격적인 행동에 개재되는 인지적인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Dodge와 동료들은(1986) 다른 사람의 의도와 행동에 대한 이해와 추론이 어떻게 개인의 행동반응에 기여하는지에 초점을 두

어,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부호해독과정, 정보해석과정, 반응탐색과정, 반응결정과정, 부호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은 자기가 직면한 상황의 어떤 단서(cue)에 대해 위의 5단계 과정을 거쳐 반응한다고 본다. 이 모델을 공격성에 적용시키면 위의 과정에서 한 단계 이상의 결함이나 편견이 공격적 반응을 가져온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공격적인 아동은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해 적의적으로 해석할 가

* 본 논문은 1991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능성이 높고(Dodge, 1980), 자신의 행동반응의 탐색 과정에서도 공격적인 행동이외에 다른 행동 목록은 가지고 있지 않으며(Richard & Dodge, 1982), 반응결정시에도 공격적인 행동반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Asernow & Callan, 1985) 정보처리 과정 단계에서의 왜곡된 특성에 의해 공격적인 행동반응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종단적 연구들에 의하면(Olweus, 1979; Eron, 1987), 아동의 공격성은 특히 남아의 경우 성인기의 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인지적 접근에서는 공격적인 아동의 경우는 내재된 사회인지에 왜곡이 있으며 이것이 또래관계에서 계속 악순환되어 공격적인 행동반응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동은 여러 영역의 사회인지적 측면에서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비해 공격적인 아동에게 있는 왜곡된 사회인지적 특성은 악순환되므로 사회인지적 능력의 차이는 연령증가에 따라 더 커질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Dodge, 1986).

이상과 같이 공격성의 개인차나 발달적인 양상 및 안정성에 대해 개인의 인지적 매개과정을 반영시킴으로써 적절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주장 아래, 공격적인 아동과 비공격적인 아동의 사회인지적 특성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Dodge, 1980; Dodge & Somberg, 1987) 주로 해석과정에서의 귀인 특성과 공격적인 행동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서, 사회정보처리 모델에서 제시된 또 다른 단계들인 반응탐색과정, 반응결정과정에 개입되는 다양한 사회인지적 능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모델 각 단계간의 관계와 같이 사회정보처리 모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상태이다.

또한 공격성의 발달적 양상에 대한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인지적 접근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사회인지와 공격적 행동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발달을 살펴 본 경험적 연구도 별로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정보해석, 반응탐색, 반응결정단계에서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른 사회적 인지특성을 밝히며, 국민학교 연령 아동의 공격성과 사회적 인지의 발달적인 측면을 살펴봄으로써 공격적인 아동의 사회인지적 특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공격성에 대한 사회정보처리모델

개인의 내적 인지요인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함께 고려하여 공격성을 설명하는 사회인지적 접근에서는 아동이 사회적 행동에 대한 해석을 하며 이러한 인지적 평가과정은 개인의 행동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어떤 상황의 자극 자체보다는, 그 자극을 개인이 어떻게 인식(perceive)하는가의 인지적 평가과정이 공격적인 행동반응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추론능력 이외에 여러가지 사회인지적인 기술도 공격적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Dodge (1986)는 다양한 범위의 사회인지적인 능력을 통합하여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제안하였는데, 인지과정의 역할을 강조하여 개인이 직면한 상황에서 유능한 방식으로 사회적인 자극을 처리하고 반응하는데까지 필요한 단계들을 밝히고 있다. 각 단계는 부호해석 과정(decoding process), 정보해석 과정(interpretation process), 반응탐색 과정(response searching process), 반응결정 과정

(response decision process), 부호화 과정(encoding process)으로 구성되며, 각 과정에는 사회인지적인 기술이나 해석능력이 필요한데, 여기서 인지능력의 결함이나 해석의 편견은 일탈된 행동반응을 가져오게 된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첫번째 단계인 부호해독 과정(encoding process)에서는 단서의 존재와 적절한 단서를 찾아내는데 주의를 집중한다. 다음은 그 단서에 대한 해석과정으로(interpretation process), 아동은 과거사건의 기억에서 다른 사람의 의도나 동기를 파악하는 규칙을 형성하여 자극을 해석한다. 반응탐색 과정(response searching process)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방안들을 산출하고, 반응결정 과정(response decision process)에서는 최적의 반응을 선택하는데, 각각의 방안에 대해 가능한 결과들을 예상하고, 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반응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다음 단계인 부호화 과정(decoding process)에서 아동은 자신에게 가능한 행동목록을 고려하여 결정된 방안을 수행한다.

사회정보처리 모델에서는 아동의 공격성을 다른사람의 의도에 대해 부적절하게 해석하는 것에 의한다는 측면과, 직면한 상황의 단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사회적 기술 또는 능력의 부족에 의한다는 측면을 통합하여 설명하고 있다.

2. 관련선행연구의 고찰

사회정보처리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의 5단계가 제시되어 있으나, 1단계와 5단계는 본 연구의 수행상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특히 2, 3, 4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해석과정에서 상대방 의도에 대한 귀인측면, 반응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예견반응과 대안적인 해결방안의 산출, 반응결정 과정에서 결과예상 측면과 각 방안에 대한

효율성 평가등, 5가지의 사회인지적 능력에 대한 관련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1) 사회정보처리모델의 해석과정에서 상대방 의도에 대한 귀인

선행연구에 의하면 상대방 의도에 대한 귀인은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라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Dodge(1980)는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을 제시하여, 상대의 의도가 적의적, 호의적, 모호한 경우에 2, 4, 6학년의 공격적인 아동과 비공격적인 아동의 의도 귀인과 행동 반응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상대의 의도가 분명히 적의적인 경우는 공격적인 아동과 비공격적인 아동이 모두 또래의 의도를 적의적으로 귀인하여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상대의 의도가 모호하게 제시된 상황에서는 비공격적인 아동이 또래가 우연히 행동한 것으로 해석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반면, 공격적인 아동은 상대의 의도를 적의적으로 해석하고 더 자주 공격적인 행동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이 공격적인 아동이 상대방의 의도를 적의적으로 귀인하는 왜곡된 특성은 여러 연구들에서 지지되고 있다 (Dodge & Frame, 1982; Dodge & Somberg, 1987; Sancilio, Plumert & Hartup, 1989).

(2) 반응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예견반응

아동이 또래로부터 오는 자극에서 상대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은 자신의 후속반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몇 연구들은 귀인과 행동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위의 연구에서 Dodge(1980)는 공격적인 아동이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 자신의 반응을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예견하는 것은 상대의 의도를 적의적으로 귀인하는 것에 의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은 상대의 의도가 명확지 않은 상황일때 공격적인 아동이 단서

를 활용하는 측면(cue-utilization)에 결함이 있어서 부적절한 공격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때 관련된 사회적인 단서를 잘못 해석하는 측면(cue-distortion)에 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격적인 아동의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귀인과 자신의 예견반응은 상대방의 의도가 모호하게 제시된 상황이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대상이 자신인 경우, 갈등이나 위협의 양상이 포함된 상황에서 더 공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oie & Dodge, 1987; Dodge & Somberg 1987; 등).

한편 상대방의 의도를 구분하는 측면과 자신의 예견반응의 측면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국민학교 2, 4, 6학년 대상의 연구(Dodge, 1980)나, 3학년과 5학년 대상의 경우(Sancilio, Plumert & Hartup, 1989)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자극의 대상이 자신일 때, 예견반응은 연령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공격성 정도에 따라서만 다르게 나타났다.

(3) 반응탐색 과정에서 대안적인 해결방안의 산출

주어진 상황에서 가능한 대안방안들을 생각하도록 했을 때, 국민학교 4학년과 6학년(Asernow & Callan, 1985), 8세와 10세 아동(Richard & Dodge, 1982)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는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공격적인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 대안을 적게 산출하였으며, 연령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공격성 정도에 따른 측면도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Sharp(1981; Slaby & Guerra, 1988 재인용)의 연구 경우에는 공격성 정도에 따른 대안산출 능력에서의 차이가 지지되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대안적인 해결방안 산출의 측면은 Marsh(1982)의 연구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주어진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더 많이 생각해 낼 수 있었다.

(4) 반응결정 과정에서의 결과예상 능력

반응결정단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방안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을 생각하도록 했을 때 학령전 아동의 경우는 결과예상의 수에서 공격성 정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Spivack & Shure, 1974), 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공격적인 집단은 비공격적인 집단에 비해 결과를 더 적게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ins & Ryan, 1983; Slaby & Guerra, 1988).

한편 국민학교 아동대상의 연구에서(Marsh, 1982) 고학년 아동이 저학년 아동에 비해서 각 방안에 대한 예상 결과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결과예상 능력에서 연령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고학년 아동은 예상하는 결과의 내용에서도 심리적 측면이나 다른 사람의 조망을 고려하는 등 국민학교 시기동안 발달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반응결정 과정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효율성 평가

아동이 여러가지 대안방안의 적절성을 비교하여 선택한 해결방안에 대해 연구자가 그 방안의 효율성을 평가했을 때, 국민학교 아동대상의 연구에서(Richard & Dodge, 1982) 단일한 해결방안이 요구될 때는 공격성에 따라 반응의 효율성이 차이가 나지않으나, 다른 후속 방안이 더 요구되면 공격적인 아동은 훨씬 비효율적이고 공격적인 방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sernow와 Callan(1985)의 연구에서 공격적인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 신체적인 공격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8세와 10세 아동을 대상으로한 Richard와 Dodge(1982)의 연구에서 효율성 평가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4학년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한 Asernow와 Callan(1985)의 연구에서는 차이를 보여 4학년 아동은 공격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비해, 6학년 아동은 공격성 보다 무시하는 방법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의 고찰결과 Dodge의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대해서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정보처리모델의 어느 한 단계에서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다양한 단계의 사회인지적 능력에 대해서도 연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인지적 측면의 발달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들의 결과들도 비 일관적 이므로,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정보해석 과정, 반응탐색 과정, 반응결정 과정에서의 사회인지적 능력이 아동의 공격성 정도와 연령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 밝혀보고자하는 연구문제 및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정보해석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귀인은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1-1.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귀인은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귀인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반응탐색 과정에서 자신의 예견반응은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2-1. 자신의 예견반응은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2. 자신의 예견반응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반응탐색 과정에서 대안적인 해결방안의 산출은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3-1. 대안적인 해결방안의 산출은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대안적인 해결방안의 산출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반응결정 과정에서 결과 예상능력은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4-1. 결과예상 능력은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4-2. 결과예상 능력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5〉 반응결정과정에서 해결방안의 효율성 평가는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가설 5-1. 해결방안의 효율성 평가는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5-2. 해결방안의 효율성 평가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B국민학교에서 3학년과 6학년의 각 학년에서 교사평가의 결과를 통해, 공격적인 남자아동 20명과 비공격

적인 남자아동 20명씩을 선정하여 8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령에 따른 차이는 국민학교 연령시기에 사회인지적 능력의 발달이 현저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아(Asernow & Callan, 1985), 국민학교 3학년과 6학년을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2. 측정도구

1) 공격성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공격적인 아동과 비공격적인 아동의 선정을 위해 Dodge와 Somberg(1987)의 “또래 관계에 대한 교사의 평가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관한 6개의 문항과, 공격성에 관한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화된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교사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공격성 점수는 높으면서 사회적 능력점수는 낮은 아동을 공격적인 아동으로 구분하여, 각 학급에서 5명씩을 선정하였고, 공격성점수는 낮으면서 사회적 능력점수는 높은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으로 구분하여 5명씩 선정하였다.

2)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대한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도구는 Dodge & Frame(1982)이 사용한 가상의 갈등상황의 이야기와, Slaby & Guerra(1988)가 사용한 social problem solving measures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제시된 이야기는 상대방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운동장에서 자신이 공에 맞았을 때, 자신의 옷에 우유가 엇질러졌을 때, 치기 놀이를 하다가 넘어졌을 때의 3가지이다. 각 대상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후에 행위자의 의도와 자신의 예견반응, 대안적인 해결방안, 해결방안

의 효율성, 예상되는 결과를 묻는 질문으로 면접하였다.

응답결과와 분석은 상대방의 의도를 적의적으로 귀인한 경우는 1점, 호의적인 귀인은 2점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반응을 공격적으로 예견한 경우는 1점, 비공격적인 반응은 2점으로 하였다. 해결방안의 효율성평가는 아동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선택한 것이 비효율적이고 공격적인 경우는 1점, 효율적이고 비공격적인 경우는 2점으로 범주에 따라 점수화 하였다. 대안적인 해결방안의 산출과 예상결과에 대한 응답은 갯수로 평가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의 방식과 응답에 대한 범주를 수정한 후에, 1992년 3월 27일~4월 3일에 걸쳐 조사대상 학교에서 본 연구자가 대상아동을 개별적으로 면접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귀인과 자신의 예견반응, 대안의 산출, 결과 예상, 해결방안의 효율성 평가의 측면에서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기 위해서 2(아동의 공격성)×2(연령) 변량분석을 실시하고,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기 위해 t 검증을 하였다.

V. 결과 및 해석

1. 정보해석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귀인

〈연구문제 1〉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주효과는 유

의하게 나타났다($F(1.76)=5.22, p<.05$). 그러나 연령에 따른 주효과와 공격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표 2>와 같이 공격적인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 상대의 의도를 더 적의적으로 귀인하는 경향을 보인다($M=1.77$ vs 1.89). 상대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공격적인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

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고의로 행동했다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가설 1-1은 지지되었으나, 가설 1-2는 기각되었다.

공격성에 따른 아동의 귀인 점수의 차이를 3학년과 6학년을 구분하여 t-test한 결과, <표 2>와 같이 특히 6학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t=2.35, p<.05, df=31.3$).

<표 1>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른 상대방의 의도귀인의 변량분석표

sources	df	ss	Ms	F	P
공격성 (A)	1	2.81	2.81	5.22**	0.025
학년 (B)	1	0.11	0.11	0.21	0.65
A × B	1	0.11	0.11	0.21	0.65
오차	76	40.95	0.54		
전체	79	43.99			

** $p<.05$

<표 2>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른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귀인점수

학년 \ 공격성	공격적인 아동	비공격적인 아동	전체	t
3 학년	1.77(0.34)	1.87(0.2)	1.82(0.28)	1.13 df=30.5
6 학년	1.77(0.24)	1.92(0.15)	1.84(0.21)	2.35** df=31.3
전체	1.77	1.89	3.66	2.31** df=63.9

** $p<.05$

2. 반응탐색과정에서 자신의 예견반응

<연구문제 2>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이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F(1.76)=18.44, p<.001$) 연령에 따른 주효과와 아동의 공격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4>와 같이 공격적인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 자신의

행동을 더 공격적인 반응으로 예견하였다($M=1.36$ vs 1.68).

즉 상대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공격적인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 자신의 반응을 공격적으로 예견하였다. 따라서 가설 2-1은 지지되었으나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공격성에 따른 예견

반응의 차이는 <표 4>와 같이 3학년 내에서도와(t= 3.80, p<.001, df=38), 6학년 내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t=2.43, p<.05, df=38).

<표 3>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른 자신의 예견반응의 변량분석표

sources	df	ss	Ms	F	P
공격성 (A)	1	19.01	19.01	18.44***	0.0001
학년 (B)	1	0.01	0.01	0.01	0.93
A × B	1	0.31	0.31	0.30	0.58
오차	76	78.35	1.30		
전체	79	97.68			

*** p<.001

<표 4>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른 자신의 예견반응 점수

학년 \ 공격성	공격적인 아동	비공격적인 아동	전체	t
3 학년	1.33(0.32)	1.70(0.28)	1.52	3.80***, df=38
6 학년	1.38(0.36)	1.67(0.37)	1.52	2.43**, df=38
전체	1.36	1.68	3.04	4.34***, df=78

*** p<.001, ** p<.05

3. 반응탐색과정에서 대안적 해결방안의 산출
 <연구문제 3>에 대해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5>과 같이 공격성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고, 연령에 따른 주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1.76)=28.35, p<.001). 아동의 공격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난 상황에서 다른 대안방안을 생각해내는 능력은 <표 6>과 같이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에 비해 더 많은 대안을 산출하였다(M+1.96 vs 1.37(개)). 이 학년간의 차이를 공격성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3학년과 6학년의 대안산출 능력은 공격적인 아동집단 내에서도와

(t=-4.03, p<.001, df=38), 비공격적인 아동집단 내에서도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t=-3.70, p<.001, df=38). 따라서 가설 3-1은 기각되었고 가설 3-2는 지지되었다.

4. 반응결정과정에서 결과예상 능력

<연구문제 4>에 대해 변량분석을 한 결과, 공격성에 따른 주효과와 연령에 따른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공격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4-1과 가설 4-2는 둘다 기각되었다.

5. 반응결정과정에서 해결방안의 효율성 평가

〈표 5〉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른 대안적 해결방안 산출능력의 변량분석표

sources	df	ss	Ms	F	P
공격성 (A)	1	1.51	1.51	0.68	0.412
학년 (B)	1	63.01	63.01	28.35***	0.0001
A × B	1	1.51	1.51	0.68	0.420
오차	76	168.950	2.22		
전체	79	234.987			

*** p<.001

〈표 6〉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른 대안적 해결방안의 산출갯수

학년\공격성	공격적인아동	t	비공격적인아동	t	전체	t
3학년	1.37(0.36)	-4.03***	1.37(0.56)	-3.70***	1.37	-5.35***
6학년	1.87(0.42)	df=38	2.05(0.06)	df=38	1.96	df=78
전체	1.62		1.71		3.33	

*** p<.001

〈연구결과 5〉에 대해 변량분석을 한 결과, 〈표 7〉과 같이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주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고(F(1.76)=3.64, p<.1) 연령에 따른 주효과와, 공격성과 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즉 상대방의 의도가 모호한 가운데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상황에서, 공격적인 아동이 자신이 가장 좋은 방

법이라고 선택한 방안은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더 공격적인 경향을 보인다(M=1.68 vs 1.83). 따라서 가설 5-1은 지지되었으나, 가설 5-2는 기각되었다. 이 공격성에 따른 차이는 3학년과 6학년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표 8〉과 같이 특히 3학년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다(t=1.84, p<.1, df=31.1).

〈표 7〉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른 해결방안의 효율성 평가에 대한 변량분석표

sources	df	ss	Ms	F	P
공격성 (A)	1	3.61	3.61	3.64*	0.060
학년 (B)	1	0.11	0.11	0.11	0.737
A × B	1	0.31	0.31	0.31	0.576
오차	76	75.45	0.992		
전체	79	79.48			

** p<.1

〈표 8〉 아동의 공격성 정도 및 연령에 따른 해결 방안의 효율성 점수

학년 \ 공격성	공격적인 아동	비공격적인 아동	전 체	t
3 학 년	1.65(0.38)	1.83(0.23)	1.74	1.84* df=31.1
6 학 년	1.71(0.38)	1.82(0.31)	1.77	0.90 df=30.8
전 체	1.68	1.83	3.51	1.93* df=70.9

* $p < .1$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Dodge의 사회 정보처리 모델에 근거하여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른 차이와 연령에 따른 발달적인 양상을 밝혀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라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귀인에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공격적인 아동의 경우 상대의 의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래의 의도를 더 적의적이고 고의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귀인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양은주, 1985; 장화정, 1990; Dodge, 1980; Dodge & Frame, 1982; Dodge & Somberg, 1987; Sancilio, Plumert & Hartup, 1989).

이러한 결과는 특히 상대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는 공격적인 아동이 적의적으로 귀인하는 특성이 더 커지는 왜곡된 특성을 입증해 주며, 이것은 아동간의 상호작용에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제로 또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상대의 의도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공격적인 아동이 적의적으로 해석, 귀인하는 것은 공격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측면은 상대방 아동 역시 공격적인 아동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되고, 공격적인 아동은 다시 상대 아동에 대해 적의적인 귀인을 강화시켜 공격적인 반응을 유지하는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악순환을 나타낼 수 있다.

둘째, 상대방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공격적인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 자신의 반응을 더 공격적인 행동으로 예견했는데, 이런 결과는 공격적인 아동은 상대방의 의도를 더 적의적으로 귀인하고 더 자주 보복적으로 공격행동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Dodge, 1980; Dodge & Frame, 1982).

한편 본 연구에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귀인과 자신의 예견 반응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국민학교 2, 4, 6학년 아동과(Dodge, 1980), 3학년과 5학년을 대상으로한 선행연구(Sancilio, Plumert & Hartup, 1989)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서 제시된 상황에 단서가 별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상대의 의도가 모호한 점,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난 대상이 바로 자신이라는 점 등에 의해 연령에 따른 차이는 보다는 공격성 정도에 따라 의도귀인과 예견반응에서 더 크게 차이가 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귀인과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 공격적인 아동은 귀인을 적의적으로한 경우뿐 아니라 호의적으로 귀인한 경우에도, 공격적인 반응을 비공격적인 반응보다 높은 비율로

선택하였다(64% vs 36%). 이것은 Dodge & Somberg(1988)나 Sancilio, Plumert & Hartup (198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공격적인 아동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자신에게 나타났을 때, 상대방의 의도를 어떻게 귀인하는가?와는 관계없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로보아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에는 다양한 인지적 과정이 관련되어 있으며, 귀인과 행동반응과의 관계가 적의적 귀인-공격적 행동, 호의적 귀인-비공격적 행동과 같이 단순한 양상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공격적인 아동의 귀인과 행동 반응과의 관계는 덜 일관적이고 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귀인보다, 행위자에게 보복하려는 단서가 공격적인 행동반응에 더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보복적인 공격반응에는 또래의 규범이 영향을 준다고 설명할 수 있다(Sancilio, Plumert & Hartup, 1989).

세째, 아동의 대안 산출능력에 관한 결과는 연령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6학년 아동이 3학년 아동에 비해서 더 많은 갯수의 대안을 생각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Marsh(198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고학년 아동이 더 많은 대안을 생각해 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안산출의 능력에서 공격성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학령전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 연구한 Sharp(1981: Slaby & Guerra 1988 재인용)의 연구와는 일치하나, 아동의 공격성에 따른 차이를 보고한 결과들(Asernow & Callan, 1985: Richard & Dodge, 1982)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국민학교 연령 시기에 대안적인 해결방안 산출능력과 같은 사회인지

적인 능력은 발달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선행연구와는 달리 공격적인 아동도 대안산출 능력이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결과예상 능력에 대한 결과는 아동의 공격성 정도나 연령에 따라서 둘 다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다 공격성 정도에 따라 결과 예상 갯수에서 차이가 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상황이 가상적이고 많은 단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과, 아동에게 자유롭게 응답하도록 하고 어떤 예를 제시해 주지 않은 연구방법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결과 예상 능력에 대해 아동의 공격성이나 연령에 따른 양상이 더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효율성의 평가에 대한 결과는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라서만 유의하게 차이가 나서, 공격적인 아동은 비효율적인 아동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안을 자신에게 가장 좋은 해결방안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것은 Asernow & Callan(198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연령보다는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라 대안방안의 효율성 평가과정에서 차이가 나서, 공격적인 아동은 공격적인 반응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것이 공격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각 단계간에는 높은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해석과정은 다른 단계들과 아무런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예견반응은 반응결정과정에서의 효율성 평가($r=.41, p<.001$)와 결과예상능력($r=.20, p<.1$)과만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정보처리모델의 각 단계

들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가정과는 다른 결과이며, 공격적인 반응을 해석과정의 귀인측면과 관련지어 설명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귀인이나 자신의 예견 반응, 해결방안의 효율성 평가에 대해 아동의 공격성 정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사회인지적인 접근에서의 주장과 같이 공격적인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에 비해 사회인지적 기술과 해석능력에서 결함을 보이며, 이와 같은 사회인지적인 특성은 그들의 공격적인 행동반응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정보처리 과정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는 대안적인 해결방안의 산출에서만 차이를 보여, 국민학교 연령에서 여러가지 사회인지적 능력의 발달양상이 뚜렷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각 단계에서 공격성 정도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일관성 있게 지지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 연령이나, 제시된 과제와 상황과 유형에 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한편으로는 Dodge의 사회정보처리 모델 자체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Dodge의 모델에서 제시한 가정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각 과정의 사회인지적 능력간에 상관이 높지 않게 나타났는데 이런 점에서 모델의 각 단계들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며, 따라서 사회정보처리 모델은 다양한 실증연구들을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에 따른 발달적인 양상에 대해서도 아울러 밝혀나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명숙. (1989). 아동의 공격행동에 따른 결과 예상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청자. (1986). 공격성의 원인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상명여자사범대학교 논문집, 제6호.
- 노치영. (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은주. (1985). 상대방의 의도가 모호한 상황에서의 아동의 공격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 (1987). 폭력의 이론-공격행동의 심리적 기제-, 정신건강연구 제6집, 한양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 윤진. (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사회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장화정. (1990). 아동의 공격성과 행위자유형에 따른 갈등결과 예상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sernow, S. R. & Callan, J. W. (1986). Boys with peer adjustment problems: Social cognitive proces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80-87.
- Asher, S. R. & Dodge, K. A. (1986). Identifying children who are rejected by their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444-449.
-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Dodge, K. A. (1985). Facets of social interaction

- and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In B. H. Shneider, K. H. Rubin & J. E. Ledingham (Eds.), Children's peer relations: Issues i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Dodge, K. A. (1986).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variabl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altruism in children. In C. Zahn-Waxler, E. H. Cummings & R. Iannotti (Eds.), Altruism and aggress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 Frame, C. L. (1983).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53, 620-635.
- Dodge, K. A., Murphy, R. r. & Buchsbaum, K. (1984). the assessment of Intention-Cue detection skills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 163-173.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6, 1146-1158.
- Dodge, K. A. & Somberg, D. R. (1987). Hostile attributional biases among aggressive boys are exacerbated under conditions of threats to the self. Child Development, 58, 213-224.
- Eron, L. D. (1980). Prescription for reduction of agg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35, 244-252.
- Ferguson, T. J. & Rule, B. G. (1988). Children's evaluations of retaliatory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9, 961-968.
- French, D. C. (1988). Heterogeneity of peer-rejected boys: Aggressive and nonaggressive subtypes. Child Development, 59, 976-985.
- Grusec, J. E. & Lytton, H. (1988). Social development. New York: Springer-Verlag.
- Hains, A. A. & Ryan, E. B.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cognitive processes among juvenile delinquents and non delinquent peers. Child Development, 54, 1536-1544.
- Lochmen, J. E. (1987). Self and Peer Perceptions and Attributional Biases of Aggressive and Non Aggressive boys in Dyadic Interaction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55, 3, 304-410.
- Marsh, D. T. (1982).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problem solving among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0, 107-1180.
- Olwe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Park, R. D. & Slaby, R. G. (1983).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In C. Mussen(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New York: Wiley.
- Patterson, C. J., Kupersmidt,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

- velopment. Englewood Cliff, N. J.: Prentice-Hall.
- Perry, D. G. & Perry, L. G. & Rasmussen, P. (1986). 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00-711.
- Richard, B. A. & Dodge, K. A. (1982). Social maladjustment and problem solving i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226-233.
- Sancilio, M. F. M., Plumert, J. M. & Hartup, W. W. (1989). Friendship and aggressiveness as determinants of conflict outcomes in middle child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812-819.
- Slaby, R. G. & Guera, N. G. (1988). cognitive mediators of aggression in adolescent offenders: 1. Assess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24, 580-588.
- Waas, G. A. (1988). Social attributional biases of peer-rejected and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9, 969-975.